

영동 중화사 목조불상과 조각승 연구

최 선 일*

-
- I. 머리말
 - II. 영동 重華寺 木造佛像과 造成發願文
 - III. 法琳과 同參 僧匠의 활동과 系譜
 - IV.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좌상과 영동 중화사 목조불상의
관련성 검토
 - V. 맺음말
-

I. 머리말

17세기 후반은 조선후기 불교조각사에서 전성기라 할 수 있다.¹⁾ 이
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기간 중에 소실된 사찰 전각 정비에 따른 불
상 제작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조각승들이 존재
하였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활동한 조각승은 전남의 色難과 忠玉, 전
북의 一機와 丹應, 경북의 勝浩, 충북의 摩日과 金文 등이 대표적이
다.²⁾ 이 조각승들은 주로 시군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의 부속 전각인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 1) 최선일, 「朝鮮 後期 彫刻僧과 佛像樣式의 변천」, 『美術史學研究』 261, 2009.3, 50-55쪽.
- 2) 이 시기 활동한 조각승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
다. 최선일, 「彫刻僧 色難의 활동과 佛像樣式」, 『博物館紀要』 23, 단국대학

영산전(나한전)이나 명부전 등에 불상을 제작하였다.³⁾ 이 전각들에 봉안된 존상의 숫자는 영산전에 20여점,⁴⁾ 명부전에 25여점이고,⁵⁾ 대략 10여명의 조각승이 3개월부터 10개월까지 작업 기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17세기 후반에 조각승이 부속 전각에 불상을 제작할 경우는 1년 동안 1-2건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상의 제작 기간은 개별 조각승이 평생 만들 수 있는 수량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이다.

본고에서 살펴볼 충북 영동 중화사 대웅전 목조불상은 개금작업을 하면서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어 시도지정문화재 조사를 계기로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졌다.⁶⁾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1686년에 경상북도 상주시 白華山 龍門寺에 봉안하기 위하여 석가삼존불과 관음보살 등을 畫員 法琳, 靈坦, 學贊, 天順, 一玉, 天悟이 조성하였다. 불상이 상주 용문사에서 영동 중화사로 언제 옮겨졌는지 알 수 있는 문헌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불상과 불화 조성에 참여한 법립, 일옥, 천오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불화를 조성한 佛畫僧이고,⁷⁾ 영탄은 17세기 중반을 대

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8, 81-110쪽; 「17세기 후반 彫刻僧 勝浩의 활동과 불상연구」, 『禪文化研究』 8, 2010, 83-119쪽; 「安城 七長寺 木造地藏菩薩坐像과 彫刻僧 金文」, 『역사민속학』 29, 2009.3, 185-208쪽(『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양사재, 2011 재수록); 김희경, 「조선후기 彫刻僧 色難의 十六羅漢像 연구」, 『禪文化研究』 8, 2010, 279-309쪽; 이민영, 「17세기 후반의 彫刻僧 端應과 卓密의 불상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조태건, 「17世紀後半 明부전의 地藏菩薩像과 十王像 研究: 勝浩, 色難, 端應의 작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등이다.

- 3)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에 소실된 사찰의 중창과 중수는 1630년대 名山大刹이, 1650-60년대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 4) 발원문에 나한전 존상의 명칭이 언급된 예는 1678년에 경북 청도 덕사 나한전에 20점 등이다.
- 5) 발원문에 명부전 존상의 명칭이 언급된 예는 1667년경 전남 화순 쌍봉사 지장전에 23점, 1678년 경북 청도 덕사 지장전에 13점, 1690년 전남 곡성 도림사 명부전 25점 등이다.
- 6) 목조불상 내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 복사본은 충북대학교 김춘실 교수님의 후의로 얻을 수 있었다.

표하는 조각승 惠熙 계보에 속하는 彫刻僧이다.⁸⁾

본고에서는 우선 충남 영동 중화사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불상의 형태와 조성발원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불상 제작에 참여한 수화승 法琳과 부화승 靈坦 등에 관한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식적으로 동일한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좌상이나 혜회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만든 불상과 상호비교를 통하여 17세기 후반 중화사 불상이 차지하는 불교조각사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II. 영동 중화사 목조불상과 조성발원문

충북 영동 중화사는 의상대사가 창건한 후, 고려시대 보각국사가 중건하였다(圖1). 중화사는 정유재란(1597년) 기간 중 소실되어 전쟁이 끝나고 서산대사가 중창한 후, 대



도1. 대웅전 전경, 영동 중화사

웅전은 17세기 후반부터 근대까지 중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⁹⁾

7) 安貴淑·崔宣一,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佛敎繪畫』, 養士齋, 2008.

8) 崔宣一,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佛敎彫塑』, 養士齋, 2007.

9) 대웅전의 중수는 1677년, 1797년(永同郡重華寺大雄殿重修記, 『朝鮮寺刹史料』 上, 朝鮮總督府, 1911, 150-151쪽), 1857년(永同郡天摩山重華寺大雄殿重修記, 『朝鮮寺刹史料』 上, 151-152쪽), 1908년, 1934년에 이루어졌다.

1. 목조불상

중화사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은 본존을 중심으로 양 협시보살을 배치한 삼존불좌상이다(圖2). 본존과 왼쪽 협시보살상은 조선후기



도2. 목조삼존불좌상, 영동 중화사

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오른쪽 지장보살상은 근래에 제작된 것이다.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불상은 2007년에 개금작업 중에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목조석가불좌상은 전체 높이가 135센티미터로, 조선 후기에 제작된 중형 불상에 속하는 작품이다(圖3).¹⁰⁾ 불상은 얼굴을 앞으로 약간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신체와 얼굴이 1:0.35의 비율로 17세기 중반에 제작된 불상보다 신체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또한 같은 시기에 활동한 색난이 1684년에 만든 전남 강진 옥련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신체비례와 착의법 등에 차이가 있다(圖4). 앞으로 숙인 머리에는 뾰족한 螺髮과 경계가 불분명한 肉髻가 표현되고, 정상부에 좁고 높은 원통형의 頂上髻珠와 이마 위에 가늘고 좁은 반원형의 中間髻珠가 있다. 계란형의 얼굴에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 반쯤 뜬 눈, 콧등이 평평한 삼각형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을 표현하였다(圖5). 이러한 얼굴의 인상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색난

10) 불상의 규격은 석가불이 全高 94cm, 頭高 33cm, 肩幅 37cm, 胸幅 24cm, 膝幅 57cm, 膝高 16cm. 腹藏孔 24cm×14cm이고, 보살상이 全高 89cm, 頭高 45cm, 肩幅 20cm, 胸幅 23cm, 膝幅 50cm, 膝高 16cm이다(문화재청 사이트 참조).



도3. 목조석가여래좌상, 1686년,
영동 중화사



도4. 색난, 목조석가여래좌상,
1684년, 강진 옥련사



도5. 목조석가여래좌상 상반신



도6. 목조석가여래좌상 측면

이나 단옹 및 금문이 제작한 불상의 얼굴형과 耳目口鼻 처리가 다르다.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오른손은 손가락을 펴고 바닥을 가리키는 항미축지인을 취하고 있



도7. 목조석가여래좌상 하반신

다. 바깥에 걸친 두꺼운 大衣는 변형통견으로,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비스듬히 짧게 걸친 후,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하반신에 펼쳐져 있다(圖6).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은 복부에서 한 가닥이 넓게 초생달처럼 펼쳐지고 끝단이 지그재그로 처리되고, 옆으로 낮게 깔린 옷주름이 네 가닥 펼쳐져 있다(圖7). 이와 같은 하반신의 옷자락 처리는 조각승 색난이나 승호가 제작한 불상과 많이 다르다. 대의 안쪽에는 편삼을 입지 않아 맨살이 드러나며, 불상이 편삼을 걸치지 않은 착의법은 조선 후기에 조성된 석가불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착의법이다.¹¹⁾ 대의 안쪽에 입은 僧脚崎는 수평으로 접어 단순하게 처리하



도8. 목조보살좌상, 1686년, 영동 중화사

11) 정은우, 「17세기 조각가 혜희(惠熙)와 불상의 특징」, 『미술사의 정립과 확

였다. 대좌는 팔각대좌 위에 연화좌를 올려놓은 단순한 구조이다.

목조보살좌상은 본존과 같이 상체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圖8). 화염보주로 장식된 커다란 보관 안쪽의 머리카락은 두 갈래로, 나머지 머리카락은 보관 밑으로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다. 인상과 대의처리는 본존과 동일하지만, 손의 위치는 본존과 달리 왼손을 어깨까지 들고, 오른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2. 조성발원문

목조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圖9-1, 圖9-2).¹²⁾

願文封 一

康熙二十五年丙寅¹³⁾五月端午日

慶尙右道尙州牧地西嶺

白華山龍門寺法堂佛

像腹藏大小施主與緣比丘

各各結願隨喜同參往生淨

土親見彌陀摩頂授記召口

列錄願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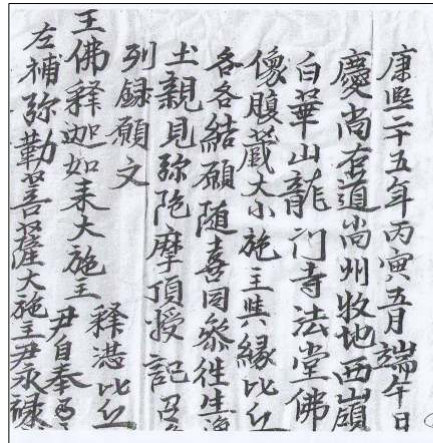
主佛釋迦如來大施主 釋湛

尹自奉 兩主

左補彌勒菩薩大施主 尹永祿 兩主

右補提花竭羅菩薩大施主 李起必
觀音菩薩大施主 金彭祖 兩主

觀音幘婆湯施主 成孝元 單身



도9-1. 조성발원문 일부

산』 2, 사회평론, 2006, 152-175쪽.

12) 필자가 조성발원문을 釋文한 후에 송광사 성보박물관 고경 관장스님이 監修와 발원문 내용에 註를 달아주셨다.

13) 康熙二十五年丙寅五月端午日是 1686년 5월 5일이다.

面金大施主¹⁴⁾ 都朴只 兩主
 面金大施主 車德立 兩主
 面金大施主 法明 單身
 體金大施主 金士京 兩主
 體金大施主 宋士立¹⁵⁾ 兩主
 面金大施主 李必達 兩主
 體金大施主 姜德每 兩主
 體金大施主 金雪伊 兩主
 體金大施主 徐召吉 兩主
 泥金大施主 金戒龍 兩主
 泥金大施主 梁忝金 兩主
 供養大施主 業伊 兩主
 布施 〃 主 宋起云 兩主
 布施大施主 金京承 兩主
 供養大施主¹⁶⁾ 金萬千 兩主
 體金大施主 徐海生 兩主
 布施大施主 柳禾里 兩主
 體金大施主 李勝立 兩主
 體金大施主 尹山男 兩主
 黃金大施主 林春金 兩主
 布施 〃 大施主 朴業男 兩主
 烏金大施主居士 敬信 兩主
 烏金大施主 金起山 兩主
 彩色大施主 李義宗 兩主
 布施大施主 呂勝熙 兩主
 腹藏大施主 普明 比丘
 腹藏大施主 善擇 比丘
 腹藏大施主 呂順擇¹⁷⁾ 兩主

14) 施都 우측 사이에 主가 적혀있다.

15) 原文은 宋士立大施主로 적혀있지만, 宋士立과 大施主에 환치부호가 있어 정정하였다.

16) 원문은 施主大이나 施主사이에 大를 補入하라는 기호가 있어 정정하면 施大主가 된다. 이것은 大施主의 誤記이다.

17) 원문은 略字로 기록되어 있다.

黃金大施主 熙彥 比丘
 面金大施主 三慧 比丘
 面金大施主 李任金 兩主
 面金大主 李大山 兩主
 供養施主 高氏禮香 兩主
 布施 〃 主 朴氏應今 兩主
 供養大施主 金男 兩主
 黃金施主 俊宗 兩主
 火爐施主 鄭日伊 兩主
 香爐施主 梁尙立 兩主
 食塩施主 金貞叔 兩主
 食塩施主 沈順命 兩主
 供養施主 金戒奉 兩主
 腹藏施主 心印 比丘
 腹藏施主 敬能 比丘
 喉令桶施主 康仁洪 兩主
 鋪團施主 李馨 兩主
 鋪團施主 李愁里金 兩主
 鋪團施主 李軒 兩主
 鋪團施主 金洛元 兩主
 圓鏡施主 黃翼再 單身¹⁸⁾
 施主 李富立 兩主
 腹藏施主 金武玄 兩主
 食鼎施主 裴生立 兩主
 小兒從良 單身 金金伊 兩主
 崔一奉 兩主 吳貴仁 兩主
 李碩吉 兩主 鄭尙伊 兩主
 李斗先 兩主 羅芴明 兩主
 李斗英 兩主 孫日男 兩主
 朴有卜 兩主 金金伊 兩主
 張愛生 兩主 金京業 兩主
 慈覺 比丘 金海成 兩主

18) 兩자를 쓴 후 單身으로 겹쳐 썼다.

沈進伊 兩主	徐進唱 兩主
梁汝渙 兩主	梁千 兩主
朴興宗 兩主	朴唱宗 兩主
朴順日 兩主	權 ¹⁹⁾ 太云 兩主
居士 連元 單身	德律 比丘
金成元 兩主	金氏命介 兩主
朴斗業 兩主	金以先 兩主
崔尙男 兩主	金應鶴 兩主
禮眞 單身	沈日龍 兩主
李厚生 兩主	彼戒賢 兩主
起云 兩主	金占立 兩主
曹武神 兩主	徐日龍 兩主
吳貴先 兩主	李成吉 兩主
兪丑龍 兩主	金後種 兩主
金愁伊立兩主	白光守 兩主
金愛生 兩主	崔得吉 兩主
崔戒水 兩主	李穰男 兩主
金洛只 兩主	尹莫立 兩主
吳莫男 兩主	尹芻男 兩主
柳無致 兩主	李京立 兩主
張韶男 兩主	徐玉立 兩立
千愛尙 兩主	李某老金 兩主
金敬立 兩主	金開花 兩主
金謹立 兩主	鄭合尹 兩主
金山立 兩主	吳貴伊 兩主
朴貴同 兩主	韓起雲 兩主
全勝億 兩主	朴九元 兩主
金召史英伊 兩主	梁性元 兩主
千召史 兩主	金英桀 兩主
大師 震言 比丘	朴氏應德 單身

19) 원문은 □로 쓰여 있는데, 이 글자는 權과 柳의 약자로 佛敎관계 글에서는 대부분 權자로 사용된다. 본 발원문의 柳無致兩主와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다.

孫命龍 兩主	尹璧祿 兩主
孫道承 兩主	尹碧申 兩主
蝸 ²⁰ 悅 比丘	金召史 ^雪 德弼
孫善日 兩主	學天 比丘
曹國明 兩主	瑞元 比丘
金杰龍 兩主	元鑿 比丘
鄭守文 兩主	明益 比丘
姜德金 兩主	祐清 比丘
禹拜唱 兩主	坦英 比丘
金戒元 兩主	崇輝 比丘
文自明 兩主	宗學 比丘
文命龍 兩主	弘俊 比丘
法連 比丘	羅先 兩主
金仁伯 兩主	金貞守 兩主
李俊彦 兩主	金命卜 兩主
朴滿石 兩主	宋得龍 兩主
金成國 兩主	朴善唯 兩主
□□□ □□	□□ 比丘
黃淵厚 兩主	金元老 兩主
林興江 兩主	崔生男 兩主
金蘭伊 兩主	金氏此陽單身
金善日 兩主	朴英祿 兩主
朴武仁 兩主	康頭乙滿 兩主
曹氏禮陽 兩主	金石立 兩主
朱勝民 兩主	金忠吉 兩主
金順起 兩主	羅 ^仅 ²¹ 男 兩主
李春林 兩主	羅秋日 兩主
朴太長 兩主	趙信碧 兩主
朴有望 兩主	裴汝積 兩主
全己賢 兩主	朴先立 兩主
朴某眞 兩主	金每日 兩主

20) □은 원문이 좌우글자 虫과 南이 바뀌어 있다.

21) □는 儀의 약자이다.

幸楚	比丘	趙儀伯	兩主
敏贊	比丘	朴永達	兩主
吳太違	兩主	片海千	兩主
尹禮範	兩主	禪敏	比丘
瑞敏	比丘	呂氏順禮	兩主
金召史	兩主	尹莘祿	兩主
李述伊	兩主	李勝元	兩主
朴忞明	兩主	金汗世	兩主
權玉男	兩主	黃銀石	兩主
韓勝立	兩主	金命立	兩主
金善安	兩主	宗衍	比丘
朴大吉	兩主	鄭守文	兩主
金哲山	兩主	曹應何	□□
小兒儉之	單身	金戒哲	兩主
金尙徵	兩主	鄭戒性	兩主
學謙	比丘	林貴哲	兩主
瑞卍 ²²⁾	比丘	宋起生	兩主
應淳	比丘	廣惠	比丘
敬湛	比丘	柳召英	兩主
思淨	比丘	小兒毛致	單身
金得夫	兩主	斗性	比丘
惟信	比丘	李談有	兩主
林命哲	兩主	一行	比丘
洪大仁	兩主	卍天真	兩主
致雄	比丘	法哲	比丘
性信	比丘	双學	比丘
念一	比丘	梁大元	兩主
去今	兩主	湛穎	比丘
徐日金	兩主	法淳	比丘
金氏德每	兩主	釋 ²³⁾ 倫	比丘
全應祐	兩主	黃今鶴	兩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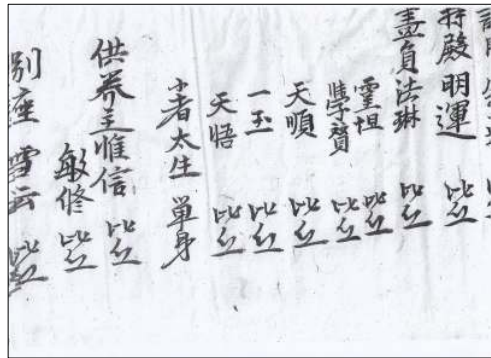
22) 卍은 嚴의 약자이다.

23) 釋은 원문에 □으로 적혀 있다.

朴氏勝礼 兩主 宋云 兩主
 覺萬壽 單身 金仁 兩主
 坦俊 比丘 朴於屯 兩主
 金祐乾 兩主

寺衆目錄

老德 元益 比丘
 老德 印機 比丘
 老 仅清 比丘
 持事 慈寬 比丘
 三綱 淨仁 比丘
 緣化列錄
 證明 處英 比丘
 持殿 明運 比丘
 畫員 法琳 比丘
 靈坦 比丘
 學贊 比丘
 天順 比丘
 一玉 比丘
 天悟 比丘



도9-2. 조성발원문 일부

小子 太生 單身
 供養主 惟信 比丘
 敏修 比丘
 別座 雪云 比丘
 負木 好起男 兩主
 埋炭 許日隆 兩主
 冶匠 權²⁴勝京 兩主
 來往 敏湖 比丘
 助緣小者 此善 單身
 幹善化師 一海 比丘
 願以此功德 普及於一

24) 權은 원문에 □로 적혀있는데, 權과 柳의 약자로 佛敎 관계 글에서 대부분 權자로 사용된다(이상 註13-註24는 고경스님 敎示).

切 我等與衆生 皆共
成佛道

위의 발원문 앞부분을 번역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강희 25년 병인 오월 단오일 경상우도 상주목 서령 백화산 용문사 법당 불상
복장 대소 시주자와 인연 있는 비구들이 각각 기뻐하며 동참하여 정토에 태어나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마정수기(摩頂授記)²⁵⁾ 받고자 합니다. 불려 모은 사람을 나
열합니다.²⁶⁾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는 석가여래를 주불로, 좌측에 미륵보살과 우측에 제화갈라보살, 관음보살상과 관음도를 1686년에 경상북도 상주 서령 백화산 용문사 법당에 봉안하기 위하여 畫員 법립, 영탄, 학찬, 천순, 일옥, 천오가 제작하였다고 적혀있다. 불상과 불화가 봉안되었던 상주 백화산 용문사는 1617년(광해군 9)에 李垞이 편찬한 상주 읍지인 『商山志』에 “在慶尙北道尙州郡白華山中 …… 今無”라 언급되어 있다. 임진왜란 기간 중에 소실되어 廢寺되었다가 1686년에 석가삼존상과 관음상 등을 만든 것으로 보아 17세기 후반에 중창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불상 가운데 석가와 미륵·제화갈라보살은 응진전이나 나한전에 봉안되었다.²⁷⁾ 불상 조성에 참여한 스님은 老德元益, 印機²⁸⁾ 儀淸, 證明은 處英, 持殿은 明運²⁹⁾ 供養主는 惟信과 敏

25) 마정수기는 부처께서 대법을 부촉하시면서 여러 보살마하살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후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고 하시며 수기를 내리신 것을 의미한다.

26) 募일 가능성이 있다.

27) 이와 같이 응진전에 봉안되었던 목조석가삼존불좌상이 대웅전에 안치된 예는 안성 칠장사 대웅전에서도 볼 수 있다(최선일, 『安城 七長寺 大雄殿 木造三尊佛坐像과 彫刻僧 摩日』, 『조선후기 彫刻僧과 佛像 研究』, 景仁文化社, 2011, 197-209쪽)

28) 1649년 경북 김천 直指寺 明寂庵 法堂上樑時施主少名抄錄記에 언급되어 있다(『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북도II 자료집』,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162-163쪽).

修, 別座는 雪云 등이 참여하였다. 이 불상 제작에 참여한 스님과 신자는 총 262명으로 다른 사찰에 봉안된 불상보다 많은 사람이 施主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法琳과 同參 僧匠의 활동과 系譜

앞 장에서 영동 중화사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의 형태와 조성발원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승장들의 활동시기와 작업 내용 및 계보 등을 밝히기 위하여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 불상의 발원문과 불화의 화기 및 사적기 등을 검토하여 보겠다.

1. 개별 僧匠의 활동과 계보

영동 중화사 대웅전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중심으로 작업 내용과 관련된 승장을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표1> 영동 중화사 대웅전 불상 조성발원문

연대	지역	사찰	작업 내용	수량	승 장	비 고
1686	경북 상주	용문사	석가여래, 제화갈라보살, 미륵보살, 관음보살 제작	4점	書員 法琳 靈坦 學贊 天順 一玉, 天悟 太生	造成發願文 영동 중화사 소장
			관음도 조성	1점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686년에 경북 상주 용문사 법당에 7명의 僧匠이 석가삼존불상과 관음보살상 및 관음도를 조성하였다. 불상과 불화 조성에 참여한 승장은 기존에 조사된 문

29) 1710년에 경북 안동 봉정사 掛佛圖 조성에 시주로 언급되어 있다(『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북도Ⅱ 자료집』, 247쪽)

헌기록을 통하여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활동 상황을 알 수 있다.³⁰⁾

<표2> 영동 중화사 대응전 불상 조성 승장의 활동

조각승	활동 내역	활동시기
法琳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84년 수화승으로 경남 산청 栗谷寺 掛佛圖 조성 ▫1686년 수화승으로 경북 상주 龍門寺 木造三尊佛坐像과 觀音菩薩像 및 觀音圖 조성 ▫1709년 慶尙道爲龍宮縣南龍飛山長安寺鍾閣重修記(懸板)에 都監 法琳으로 언급(직지성보박물관 소장) 	-1684- 1709-
靈坦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77년 수화승 慧熙와 고산현 대둔산 용문사 목조약사불 좌상 제작(전주 일출암 봉안, 發願文) ▫1686년 수화승 法琳과 경북 상주 龍門寺 木造三尊佛坐像과 觀音菩薩像 및 觀音圖 조성 	-1677- 1686-
學贊	▫1686년 수화승 法琳과 경북 상주 龍門寺 木造三尊佛坐像과 觀音菩薩像 및 觀音圖 조성	-1686-
天順	▫1686년 수화승 法琳과 경북 상주 龍門寺 木造三尊佛坐像과 觀音菩薩像 및 觀音圖 조성	-1686-
一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86년 수화승 法琳과 경북 상주 龍門寺 木造三尊佛坐像과 觀音菩薩像 및 觀音圖 조성 ▫1698년 『莊陵封陵都監儀軌』 造成所 畫僧(奎章閣 14830호) 	-1686- 1698-
天悟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86년 수화승 法琳과 경북 상주 龍門寺 木造三尊佛坐像과 觀音菩薩像 및 觀音圖 조성 ▫1718년 수화승으로 경북 경주 祇林寺 大寂光殿 三身佛會圖 조성 ▫18세기 전반에 수화승으로 경북 경주 祇林寺 三藏圖 조성(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所藏) 	-1686- 1718-
太生	▫1686년 수화승 法琳과 경북 상주 龍門寺 木造三尊佛坐像과 觀音菩薩像 및 觀音圖 조성	-1686-

30) 이들 승려에 관해서는 崔宣一, 앞의 책, 2007과 安貴淑·崔宣一, 앞의 책, 2008을 참조할 만하다.



도10. 법림, 괘불탱, 1684년, 산청 율곡사



도11. 혜희, 목조여래좌상, 1677년, 진주 일출암



도12. 천오, 비로자나삼불회도 일부, 1718년, 경주 기림사

불상과 불화를 제작한 승장은 法琳, 靈坦, 學贊, 天順, 一玉, 天悟, 太生이다. 이 가운데 법림은 수화승으로 1684년에 경남 산청 栗谷寺 掛佛圖을 조성한 후(圖10),³¹⁾ 1686년에 경북 상주 용문사 목조삼존불좌상과 관음보살 및 관음도를 제작하고, 1709년에 경상도 龍宮 龍飛山³²⁾ 長安寺 鍾閣 重修에 都監으로 참여하였다.³³⁾ 따라서 법림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경상북도 예

31) 『한국의 사찰문화재 자료집 - 경상남도 I 자료집』, 문화재청·제주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9, 229쪽.

32) 龍宮 龍飛山는 현재 경북 예천군 용궁면의 옛 지명이다.

33)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북도 II 자료집』, 300-301쪽

천군 장안사에 거주한 불화승으로 추정된다.³⁴⁾ 부화승 영탄은 1677년에 수화승 慧熙와 지금의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현 대둔산 용문사에 목조약사불좌상(현재 전주 일출암 봉안)을(圖11),³⁵⁾ 1686년에 부화승으로 경북 상주 용문사 목조삼존불좌상과 관음보살 등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영탄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혜회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으로 보인다. 이외 一玉은 1686년에 경북 상주 용문사 목조삼존불좌상과 관음보살 등 조성하고, 1698년에 장릉봉릉 조성소 畫僧으로 참여하여 불화승 일 가능성이 높다.³⁶⁾ 마지막으로 천오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불화승으로, 1686년에 수화승 법립과 경북 상주 용문사 목조삼존불좌상과 관음보살 등을 제작하고, 1718년에 수화승으로 경북 경주 祇林寺 大寂光殿 三身佛會圖과 三藏圖(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所藏)를 조성하였다(圖12).³⁷⁾

學贊과 天順 및 太生은 1686년에 경북 상주 용문사 불상과 불화 조성만 조사되었을 뿐 다른 문헌기록에서 찾을 수 없는 僧匠이다.

2. 조각승 영탄의 계보

앞에 언급한 7명의 승장 가운데 불상 조성의 부화승인 영탄은 기존에 조사된 불상 조성발원문과 사적기를 통하여 활동시기와 계보를 파악할 수 있다.

34) 조선후기에 활동한 승장 법립은 두 명이 조사되었다. 그 가운데 1623년에 수화승 수연과 인천 강화 전등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한 인물과 본고에서 살필 법립은 활동 시기에 차이가 많아 同名異人으로 보았다.

35)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 사진은 2010년 8월 5일 일출암 주지스님이 제공해 주셨다.

36) 奎章閣 14830호(朴廷蕙,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미술사연구』 9, 미술사연구회, 1995, 203-2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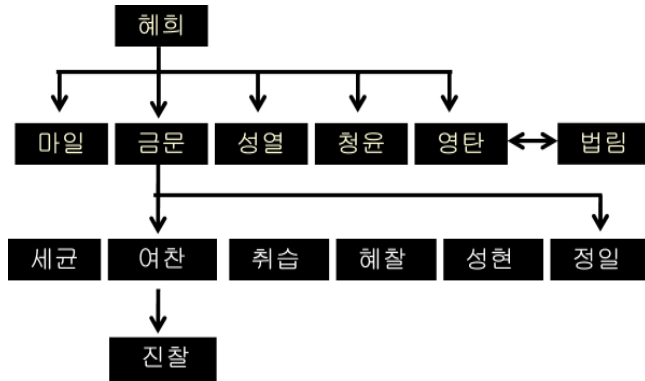
37) 『한국의 사찰문화재 자료집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자료집』, 문화재청·계)불교문화재연구소, 2007, 171쪽.

<표3> 조각승 혜희 계보의 조각승

연도	지역	사찰	작업 내용	조각승	비고
1615	전북 김제	금산사	독성 조성	畫員 太顛 應元 守衍 法 令 印均	『大藏殿奉安佛像造 成年代及七星閣』
1629	전북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삼 존불좌상 조 성	畫員 法靈 太甘 天允 覺 玄	『한국의 사찰문화 재-전라북도·제주 도』
1640	전북 옥구	불명사	불상 조성	大畫員 法靈 哲學 慧熙 祖能 惠元	『승림사 보광전 수 리보고서』 * 익산 승림사 소 장
1641	전북 완주	송광사 대웅전	소조석가삼 존불좌상 조 성	畫員 淸憲 法令 … 法玄 … 賢允 … 惠熙 … 惠 遠	『完州 松廣寺 鍾樓 實測調查報告書』
1642	경북 고령	반룡사	소조비로자 나삼존불좌 상 조성	畫員 惠熙	조성발원문
1655	충북 보은	법주사 원통보 전	목조관음보 살좌상 조성	畫師 惠熙 智修 天允 … 性悅 處祥 摩日 … 金 文 …	정은우, 「17세기 조각가 혜熙와 불 상의 특징」
1676	고산	대둔산 安心寺 華藏庵	목조삼존불 상 조성	畫員 通政大夫 惠熙 金 文 性悅 寶融 懷日	『大藏殿奉安佛像造 成年代及七星閣』과 造成發願文 * 김제 금복사 봉 안
1677	고산	대둔산 龍門寺 비로전	목조약사불 좌상 조성	畫員 慧熙 處祥 信一 靈 坦 普融 懷一 道文	* 전주 일출암 비 로전 조성
1686	경북 상주	용문사	목조석가삼 존 불 좌 상, 관음보살상 등 조성	畫員 法琳 靈坦 學贊 天 順 一玉 天悟	發願文 * 영동 증화사 봉 안

영탄의 스승이나 선배로 여겨지는 승려들을 살펴보면, <표3>과 같
이 조각승 혜희가 가장 중요한 스님이다. 조각승 혜희는 17세기 중반
에 太顛과 法靈(法令)의 계보를 따르는 조각승으로,³⁸⁾ 1640년에 수화승
法靈과 전북 옥구 불명사 불상(현재 익산 승림사 소장)을,³⁹⁾ 1641년에

전북 완주 송광사 대웅보전 소조삼세불좌상을 수화승 청헌과 부화승 법령과 같이 제작하였다.⁴⁰⁾ 혜희는 1642년에 수화승으로 경북 고령 반룡사 소조비조자나삼존불좌상을,⁴¹⁾ 1655년에 충북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제작하였고, 1677년에 고산 대둔산 龍門寺 毘盧殿 목조약사불좌상 제작에 수화승 혜희와 보조화승 영탄이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연대를 고려하면 太顛(-1600-1615) → 法靈(法승, -1615-1641-) → 惠熙(慧熙, -1640-1677-) → 靈坦(-1677-1686-)으로 이어지는 조각승 계보가 형성된다.



38) 조각승 惠熙에 관해서는 정은우, 앞의 논문, 152-175쪽을 참조할 만하다.
 39) 崇德五年庚辰二月日 全羅北道臨陂之鷲聖山佛明寺 像佛 彌陀觀音大勢至三尊釋迦如來三尊成佛 彌陀 獨聖 五月初一日造成 … 證明 靈寬 … 大畫員 法靈 哲學 覺玄 慧熙 祖能 惠元
 40) 『完州 松廣寺 鍾樓 實測調査報告書』, 文化財廳, 2000, 61-64쪽.
 41) 임남수 외, 「고령 반룡사(盤龍寺) 비로자나삼존불좌상」, 『民族文化論叢』 4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543-581쪽

IV.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좌상과 영동 중화사 불상의 관련성 검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산1-1번지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심곡암에는 영동 중화사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보살좌상과 유사한 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사찰 측에 의하면 “요사체에 봉안된 보살상은 심곡암이 창건되었던 1930년대부터 내려왔다”고 한다.

1.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좌상

목조보살좌상은 높이가 88.3cm로(圖13), 보관(寶冠)이 없어진 상태이고, 정수리에는 둥글게 말린 높은 寶髻가 있다. 머리카락은 귀를 따라 앞뒤로 흘러내리다가 귀 볼에서 한 가닥으로 꼬여 어깨 위에서 세 가닥으로 둥글게 말린 후에 두 가닥으로 늘어져 있다. 옆으로 약간 퍼진 얼굴에 반쯤 뜬 눈은 수평으로 처리하고, 코는 원통형으로 곧게 뻗어



도13. 목조보살좌상, 서울 심곡암



도14. 목조보살좌상 상반신

있으며, 입에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圖14). 보살상의 착의법은 변형 편단우견(變形偏袒右肩)으로, 바깥에 걸친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에 짧게 U자형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옷자락은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반대쪽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흘러내려 복부에서 편삼과 자연스럽게 겹쳐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은 복부에서 한 가닥이 넓게 초생 달처럼 펼쳐지고 끝단이 지그재그로 처리되고, 옆으로 낮게 깔린 옷주름 네 가닥이 표현되어 있다. 보살상 뒷면은 목 주위에 넓게 대의자락이 접혀져 있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자락이 엉덩이 위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대의 안쪽에 입은 僧脚崎는 수평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오른손은 어깨 높이까지 들고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 손바닥을 위로 엄지와 중지를 붙이고 있다.⁴²⁾ 보살상의 바닥면에는 사각형의 복장공이 뚫려있고, 내부에 복장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2.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좌상과 영동 중화사 목조 불상 관련성 검토

앞서 영동 중화사와 서울 심곡암에 봉안된 보살상에 대한 형태를 검토해 보았다. 이는 두 보살상의 연관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중화사와 심곡암에 봉안된 불상의 규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³⁾

42) 보살상은 왼쪽 손목이 절단되어 있고, 오른쪽 손가락 세 개에 없어진 상태이다. 내부는 전체적으로 옷칠이 되어 있다.

43) 영동 중화사 불상은 문화재청 사이트에 나와 있는 실측치를,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좌상은 필자가 2011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조사를 계기로 실측한 숫자이다.

<표4> 영동 중화사와 서울 심곡암 불상의 실측치

사찰	존상명	총고	견폭	슬고	슬폭
영동 중화사	목조여래좌상	94.0cm	37.0cm	16.0cm	57.0cm
	목조보살좌상	89.0cm	20.0cm	16.0cm	50.0cm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좌상	88.3cm	35.5cm	15.0cm	49.5cm

총고는 영동 중화사 보살상이 89.0cm이고, 서울 심곡암 보살상이 88.3cm로 거의 차이가 없다. 영동 중화사 보살상은 보관이 있고, 서울 심곡암 보살상이 보관이 없지만, 조선후기 제작된 보살상은 상투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실측에 보관의 유무가 관련이 없다. 肩幅은 기존 자료에 영동 중화사 보살상이 20cm로 나와 있지만, 胸幅이 23cm로 적혀 있어 흉폭이 견폭보다 넓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실측치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동 중화사 본존과 서울 심곡암 보살상은 膝高와 膝幅이 0.5-1cm정도 밖에 차이가 없어 동일한 규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살의 인상은 안면의 높이와 폭이 거의 동일한 치수로 넓적한 얼굴에 가늘게 뜬 눈, 코등이 평평한 코, 넓은 인중, 미소를 머금은 입에서 풍기는 인상이 유사하다. 따라서 한 조각승의 조형감각이 반영되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조선후기 활동한 조각승은 만들 때마다 인상이 약간씩 다른데, 영동 중화사 불상과 서울 심곡암 보살상은 거의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어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圖15).



도15-1. 목조여래좌상, 영동 중화사



도15-2. 목조보살좌상, 영동 중화사



도15-3. 목조보살좌상, 서울 심곡암

두 보살상의 착의법은 들고 있는 손의 위치가 다르지만,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 자락이 U자형으로 짧게 늘어진 형태와 그 뒤로 한 가닥의 주름이 접힌 점, 왼쪽 어깨에 수직으로 내려오는 대의 자락의 끝부분에 사선으로 접힌 끝자락 형태, 편삼이 복부에서 대의 자락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 등이 동일하다. 또한 서울 심곡암 보살상과 중화사 여래상은 왼쪽 어깨에서 수직으로 늘어진 대의 자락의 상단에 수직으로 접힌 옷자락이나 넓은 대의자락 뒤에 가늘게 하나의 선으로 옷주름이 처

리된 점, 왼쪽 겨드랑이로 접힌 한 가닥의 옷자락 등도 같다(圖16). 뿐만 아니라 중화사 여래상과 보살상, 서울 심곡암 보살상은 하반신에

결친 옷자락도 끝부분이 각진 형태를 하면서 복부에 앞으로 넓게 펼쳐진 옷자락 끝단이 지그재그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옷자락 끝단의 처리 형태는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색난, 단응, 승호가 만든 불상과 차이가 있다(圖17).



도16-1. 목조석가여래좌상, 1686년, 영동 중화사
 도16-2. 목조보살좌상, 1686년, 서울 심곡암



도17-1. 목조여래좌상, 1686년, 영동 중화사



도17-2. 목조보살좌상, 1686년, 영동 중화사



도17-3. 목조보살좌상, 서울 심곡암



도17-4. 단응, 목조여래좌상, 1684년, 예천 용문사



도17-5. 색난, 목조석가여래좌상, 1684년, 강진 옥련사



도17-6. 승호, 석조여래좌상, 1678년, 청도 덕사



도18. 승일, 석조보살좌상, 1668년, 김천 직지사



도19. 마일, 목조여래좌상, 1685년, 안성 칠장사



도20. 금문, 목조지장보살좌상, 1706년, 안성 칠장사



도21. 목조여래좌상, 개인 소장

17세기 후반에 여러 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마다 조형 감각이 다르고,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영동 중화사와 서울 심곡암 보살상에서 볼 수 있는 대의처리 형태는 1668년에 승일이 제작한 김천 직지사 석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의 협시보살(圖18), 1685년에 수화승 마일이 제작한 안성 칠장사 대웅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圖19), 1706년 수화승 금문이 제작한 안성 칠장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유사하다(圖20). 이 가운데 마일과 금문은 조각승 혜희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으로, 이들이 만든 불상은 중화사 불상과 전체적인 신체 비례와 대의 처리는 유사하지만,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은 다른 편이다.

서울 심곡암 보살상은 오른손을 어깨 높이까지 들고 왼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러한 자세는 조선후기 대웅전이나 영산전에 봉안되는 문수와 제화갈라보살이거나 관음전(원통전)에 봉안된 관음보살이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좌상은 전체적인 형태에서 영동 중화사 불상 조성기에 언급된 석가삼존의 제화갈라보살이거나 별도로 만들어진 관음보살이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은 불상으로는 불상 양식을 가진 불상으로는 제작연대를 알 수 없는 개인 소장 목조여래좌상이 있다(圖21).⁴⁴⁾

V. 맺음말

이상으로 영동 중화사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과 그것을 만든 범립과 영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얻을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범립과 영탄의 生沒年代나 다른 조각승과의 교류관계 등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었지만, 이제까지 막연하게 조선 후기로 추정되던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좌상이 1686년 상주 용문사에 만들어졌던 제화갈라보살이거나 관음보살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44) 『제67회 근현대 및 고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2002.

발원문과 사적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영탄의 생애는 1640년을 전후에 태어나서 1677년에 수화승 慧熙와 지금의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현 대둔산 용문사에 목조약사불좌상(현재 전주 일출암 봉안)을, 1686년에 부화승으로 경북 상주 용문사 목조삼존불좌상과 관음보살 등을 조성하였다. 영탄은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조각승 혜희 계보에 속하는 스님이다. 영탄이 속한 조각승 계보는 太顛(-1600-1615-) → 法靈(法令, -1615-1641-) → 惠熙(慧熙, -1640-1677-) → 摩日(-1655-1685-), 金文(-1655-1706-), 淸允(-1684-1706-), 靈坦(-1677-1686-) → 麗贊(呂贊, -1706-1746-) → 震察(震利, -1640-1677-)로 이어지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계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주로 불상을 만든 지역은 영탄이 전북 완주와 경북 상주, 마일이 경기 안성과 충남 공주, 금문이 안성 등으로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으로 여겨진다.

조선 후기 거주 지역이 확인된 조각승은 충남의 雲惠, 전남의 色難과 忠玉, 전북의 一機, 인천의 最白 등이 거주 지역이나 사찰이 밝혀졌기 때문에 17-18세기 체계적인 문헌기록의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조선 후기 佛畫와 梵鐘 같이 지역적 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접수:2011.11.15, 심사시작:2012.1.16, 심사완료:2012.1.20]

주제어 : 조선후기(朝鮮後期), 조각승(彫刻僧), 발원문(發願文), 중화사(重華寺), 영탄(靈坦)

<참 고 문 헌>

○ 사적기와 문헌자료

- 권상노, 『한국사찰전서』,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永同郡重華寺大雄殿重修記」, 「永同郡天摩山重華寺大雄殿重修記」(『朝鮮寺刹史料』上, 朝鮮總督府, 1911)
『朝鮮寺刹史料』上, 朝鮮總督府, 1911
造成發願文(영동 중화사 대웅전 불상,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보살상, 완주 대둔사 안심사 화장암 불상, 완주 송광사 대웅보전 불상 등)
韓國學文獻研究所 編著, 『金山寺誌』, 亞細亞文化社, 1983.
황성렬, 『승림사제산목록대장』, 1957(필사본)

○ 보고서와 자료집 및 도록

- 『完州 松廣寺 鍾樓 實測調査報告書』, 文化財廳, 2000.
『제67회 근현대 및 고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2002.
『한국의 사찰문화재—충청북도』,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 발굴조사단, 2006.
『한국의 사찰문화재 자료집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문화재청·제 불교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북도II』, 문화재청·제 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사찰문화재 자료집 - 경상남도 I』, 문화재청·제 불교문화재 연구소, 2009.

○ 단행본

- 김리나 외, 『한국불교미술사』, 미진사, 2011.
安貴淑·崔宣一,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佛敎繪畫』, 養士齋, 2008.
崔宣一,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佛敎彫塑』, 養士齋, 2007.
_____, 『조선후기 彫刻僧과 佛像 研究』, 景仁文化社, 2011.

○ 논저

- 김희경, 「조선후기 彫刻僧 色難의 十六羅漢像 연구」, 『禪文化研究』 8, 2010, 279-309쪽.
朴廷蕙,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미술사연구』 9, 미술사 연구회, 1995, 203-290쪽
이민영, 「17세기 후반의 彫刻僧 端應과 卓密의 불상 연구」, 홍익대학교

-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 임남수 외, 「고령 반룡사(盤龍寺) 비로자나삼존불좌상」, 『民族文化論叢』 4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543-581쪽.
- 정은우, 「17세기 조각가 혜희(惠熙)와 불상의 특징」,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 사회평론, 2006, 152-175쪽.
- 조태건, 「17世紀後半 명부전의地藏菩薩像과 十王像 研究 : 勝浩, 色難, 端應의 작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 崔宣一, 「朝鮮後期 全羅道 彫刻僧 色難과 그 系譜」, 『미술사연구』 14, 2000, 35-62쪽.
- _____, 「朝鮮 後期 彫刻僧과 佛像樣式의 변천」, 『美術史學研究』 261, 2009.3, 50-55쪽.
- _____, 「彫刻僧 色難의 활동과 佛像樣式」, 『博物館紀要』 2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8, 81-110쪽;
- _____, 「17세기 후반 彫刻僧 勝浩의 활동과 불상연구」, 『禪文化研究』 8, 2010, 83-119쪽
- _____, 「安城 七長寺 木造地藏菩薩坐像과 彫刻僧 金文」, 『역사민속학』 29, 2009.3, 185-208쪽
- _____, 「安城 七長寺 大雄殿 木造三尊佛坐像과 彫刻僧 摩日」, 『조선후기 彫刻僧과 佛像 研究』, 景仁文化社, 2011, 197-209쪽
- 崔仁善, 「康津 玉蓮寺 木造釋迦如來坐像과 腹藏」, 『文化史學』 創刊號, 한국문화사학회, 1994.6, 129-158쪽.

○ 사이트

문화재청(www.cha.go.kr)

전통사찰관광종합정보(www.koreatemple.net)